

흑치상지(黒齒常之)·

흑치준(黒齒俊)

부자(父子)의 사적과

묘지의 제작배경

黒齒常之・俊親子の事績とその  
墓誌の制作背景

저자 | 우에다 키헤이나리치카 (植前 喜兵成智)

번역 | 오택현 (동국대 국사학과)

▶ 이 논문 번역은 [아카루트 2020년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저작권은 아카루트에 있습니다.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DBpia



아카루트

## 흑치상지(黑齒常之) · 흑치준(黑齒俊) 부자(父子)의 사적(事績)과 묘지(墓誌)의 제작배경(1) (黑齒常之 · 俊親子の事績とその墓誌の制作背景)

우에다 키헤이나리치카 (植前 喜兵成智)

\*번역 : 오택현 (동국대 국사학과)

### 서론

흑치상지(黑齒常之)는 백제 부흥운동에서 활약했던 장군이다. 하지만 중국사 측면에서 본다면 그는 당(唐)의 변경에서 활약했던 번장(藩將)이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의 흑치상지 전(傳)에 정리되어 있고, 본기(本紀), 유인궤 전(劉仁軌傳), 토번 전(吐蕃傳), 돌궐 전(突厥傳),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신당서』 열전(列傳)을 축약해서 인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흑치상지의 사적(事績)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사료를 기본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흑치상지의 사적을 복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출토 자료인 묘지(墓誌)이다. 흑치상지의 묘지는 1929년 10월 낙양(洛陽) 망산(邙山)에서 그의 아들인 흑치준(黑齒俊)의 묘지와 함께 출토되었다. 2개의 묘지는 20세기 전반에 활약했던 중국 정치가 이근원(李根源)이 구입한 후, 소주(蘇州) 문관회(文官會)를 거쳐 현재는 남경박물관(南京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sup>2)</sup>

1986년 이근원의 아들 이희필(李希泌)이 편집한 『곡석정노장당묘지(曲石精蘆藏唐墓地)』<sup>3)</sup>와 1989년에 북경도서관금석조(北京圖書館金石朝)가 발행한 『북경도서관장중국역대석각탁본휘편(北京圖書館長中國歷代石刻拓本彙編)』<sup>4)</sup>에 묘지 탁본 사진이 게재된 후, 중국과 한국에

- 1) 植前 喜兵成智, 「黑齒常之·俊親子の事績とその墓誌の制作背景」, 季刊『古代文化』第70 第4号, 公益財団法人古代学協会, 2019年 3月, pp.525~546.
- 2) \*역주 : 남경박물관에 흑치상지·흑치준 묘지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정확한 소재지는 알 수가 없다(오택현, 「黑齒常之 墓誌銘」, 『한국고대 문자자료연구』 백제(하), 주류성, 2015, p.379).
- 3) 李希泌編 『曲石精蘆藏唐墓地』(齊南, 齊魯書社, 1986年).
- 4) 北京圖書館金石組編 『北京圖書館長中國歷代石刻拓本彙編』 18冊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89年), p.152.

서 흑치상지 묘지에 관한 연구가 몇몇 발표되었다.<sup>5)</sup> 중국의 연구는 묘지에 나타난 구절을 해석하거나 그 구절이 사서(史書)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어, 사료 소개가 중심이다.<sup>6)</sup> 한편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묘지에 기록된 조상의 사적과 흑치상지가 좌전(左傳) 등 한적(漢籍)을 학습하였다는 기록에 주목해, 백제 사회를 해명하는 사료로 묘지를 취급하고 있다.<sup>7)</sup>

대표적으로 마츠(馬馳)는 열전과 묘지를 비교한 후, 묘지의 내용과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묘지와 열전의 기술 차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상세한 사료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문기는 묘지의 내용에 기초해 흑치상지의 생애와 활동을 재구성하고, 백제사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흑치(黑齒)씨가 부여(扶餘)씨에서 갈라져 흑치의 땅에 분봉(分封)되었다는 기술이 사실이였는가,<sup>8)</sup> 흑치씨 집안이 달솔(達率)을 세습하고 있었다는 것, 흑치상지가 한적을 학습하고 있었다는 기록에 기초해 백제 귀족의 학문적 소양 등에 집중하여 백제사 사료로 흑치상지 묘지를 취급하고 있다. 또 복원된 입당(入唐) 후의 사적에 대해서도 대부분 묘지의 기술에 의거하여 재구성했다. 이도학은 흑치상지 묘지에 근거하여 흑치씨가 부여씨에서 분지(分枝)된 것, 백제 지방 통치 형태, 백제 신분제, 백제 귀족의 학문적 소양,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 등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흑치상지의 입당 과정에 대해서는 묘지와 열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전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묘지의 기술을 전적으로 활용하는 등 사료를 취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강종원은 이문기와 이도학의 견해를 계승하여 백제 지방제도의 문제와 백제 멸망 무렵 흑치상지의 활동을 통해서 그의 정치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즉 백제에 관한 사료로서 흑치상지 묘지를 이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흑치상지 묘지의 판독 및 이해가 진행되었으나 몇몇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는 제한적으로 사료를 이해하고 있어 상세한 사료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둘째는 백제와 관련된 일부의 기록을 가지고 부분적 해석에 매몰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하면 기존 연구는 충분한 고증을 거치지 않고 묘지에서 전하는 기록을 열전의 기록에 맞추어 단순하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묘지의 사료적 성격과 특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흑치상지 묘지를 비판 없이 백제 사회의 실태를 반영하는 사료로 취급하고 있던 것이

- 5) 釋文에 대해서는 周紹良編『唐代墓誌彙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年); 趙振華『洛陽古代銘刻文獻研究』(西安, 三秦出版社, 2009年) 등에 개재되어 있다. 또 墓誌 내용 역주는 宋基豪「백제 유민 관련 금석문」(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譯註韓國古代金石文 I』, 서울, 駕洛國史蹟開發研究員, 1992년)이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한국고대 문자자료연구-백제』상·하(서울, 주류성, 2015년);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년); 『중국 출토 百濟人 墓誌 集成』(공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6년) 등이 간행되어 흑치상지·흑치준 부자의 묘지 역주도 수록되어 있다.
- 6) 張乃翥·張成昆「跋洛陽出土的聖曆二年흑치상지墓誌」(『唐史論叢』6, 西安, 1995年); 李之龍「唐代黑齒常之墓誌文考釋」(『東南文化』1996-3, 南京, 1996年); 東有春·焦正安「唐代百濟흑치상지·黑齒俊父子墓誌解讀」(『東南文化』1996-4, 南京, 1996年); 東有春「唐代흑치상지호及生卒年新考」(『江海學干』1996-6, 南京, 1996年); 馬馳「舊唐書」黑齒常之傳의 補欠과 考辨」(『百濟의 中央과 地方』百濟研究論叢5, 대전,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997年); 陳啓「黑齒常之評述」(『中央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01-3, 北京, 2001年).
- 7) 李文基「百濟黑齒常之父子墓誌銘의 檢討」(『韓國學報』64, 서울, 1991년); 李道學「黑齒常之墓誌銘」의 분석」(『백제 사비성 시대 연구』, 서울, 일지사, 2010년, 제15장); 姜鐘元「百濟 黑齒家の 成立과 흑치상지」(『百濟研究』38, 서울, 2003년).
- 8) 구체적으로는 墓誌의 기술이며, 黑齒씨가 왕족 扶餘씨에서 나뉜 것인가, 黑齒 分封이 중국적인 봉건제도의 시행을 의미하는 것인가, 百濟씨가 지명에서 유래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李文基, 註5 앞의 논문).

다.

이미 당대(唐代) 묘지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묘지를 사료로 취급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어왔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자면 묘지는 귀족과 묘지의 관계자에 의해 개인의 업적에 대해 가필과 운색 혹은 사실과 다른 행적들을 삭제한 사례가 있다.<sup>9)</sup> 그러므로 고인(故人)의 사적을 재구성할 때는 묘지의 기록을 무분별하게 비판 없이 인용해서는 안 된다. 흑치상지 묘지도 후세에 의한 개변(改變)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료적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도 흑치상지 묘지는 묘지가 작성되었던 사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를 작성한 아들 흑치준의 묘지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흑치준의 사적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일찍이 이와미 키요히로(石見清裕)는 행장(行狀), 열전, 묘지가 남겨진 설원초(薛元超), 배진(裴稹)의 열전을 검토하였다. 설원초의 경우, 열전과 묘지의 기술이 행장과 중복되어 열전과 묘지가 행장을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배진의 경우는 열전과 행장이 중복되지만, 묘지와 행장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 열전과 묘지가 다른 사료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이와미 키요히로의 연구를 염두에 두면 흑치상지의 경우 행장이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열전과 묘지가 어떤 자료를 통해 남겨졌는지 유의하면서 그 상호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열전을 중심으로 전해오던 문헌 사료와 묘지의 사료적 관계성, 그리고 묘지가 작성되었던 배경을 찾는 종합적인 시각으로 묘지 및 열전의 사료적 성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논지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열전의 구성을 분석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유한 정보를 가지는 것인가를 살펴본 후, 그 성격과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열전과 묘지의 구성을 비교함으로써 양자가 어떠한 사료적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흑치상지 묘지의 성격을 고려하기 위해 묘지를 작성했던 경위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제1·2장에서 살펴보았던 열전과 묘지의 성격 및 양자의 관계를 근거로 두 사료의 어긋나 있는 부분과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제시한다. 각 장의 검토를 통해 흑치상지 묘지의 사료적 성격을 살펴보고, 그 사적을 정리할 수 있다. 이는 흑치상지 묘지를 백제사 사료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백제 유민과 한국에 남겨진 사료들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1. 흑치상지 열전과 묘지의 사료적 관계

### 1. 문헌 사료에 남겨진 사적

문헌 사료에 남겨진 흑치상지의 사적을 확인하기 위해 『구당서』 권109 흑치상지 전과 그 외 사료와의 차이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흑치상지의 열전 전문을 판독하면 다음과 같다.

9) 愛宕元 「墓誌銘における曲筆-紇干承基墓誌を例して」(『中國における歴代認識と歴代意識の展開について総合的研究』平城四・五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総合研究[A]研究成果報告書, 1994年); 礪波護 「魏徴撰の李密墓誌銘-石刻と文集との間」(『東方學』103, 東京, 2002年); 會田大輔 「『宇文述墓誌』と『隋書』宇文述傳-墓誌と正史の宇文述像をぐって」(『駿台史學』137, 東京, 2009年).

10) 石見精裕 「唐代墓誌史料の概観-前半期の官撰墓誌・規格・行狀との關係」(『唐代史研究』10, 東京, 2007年).

- (A) 흑치상지는 백제 서부 사람이다. 키는 7척 정도이며, 날쌔고 용감하였으며, 모락이 있었다.
- (B) 처음에는 백제에 있었으며, 달솔과 군장(郡將)을 겸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의 자사(刺史)와 같다.
- (C) 현경(顯慶) 5년(660),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평정하자, 흑치상지는 부하를 이끌고 관례에 따라 항복하는 정성을 보냈다. 이때에 소정방이 백제의 왕 및 태자 웅(隆) 등을 잡아매고 이어서 병사를 풀어 약탈하자 건장한 자가 많이 죽었다. 흑치상지가 두려워하여 측근 10여 명과 도망쳐 본부(本部)로 돌아가서, 도망하고 흩어진 무리를 모아 임존산(任存山)을 함께 지키고 목책을 축조하여 스스로 굳건히 하였다. 10여 일 사이에 귀부(歸附)하는 자가 3만여 명이나 되었다. 소정방이 병사를 파견하여 그를 공격하자, 흑치상지가 죽음을 각오한 병사를 거느리고 맞서 싸우니 관군이 패하였다. 마침내 본국의 200여 성을 회복하였고 소정방은 토벌할 수 없어서 돌아왔다.
- (D) 용삭(龍朔) 3년(663) 고종(高宗)이 사신을 파견해 그를 불러 깨우쳤다. 흑치상지가 그 무리를 다 이끌고 항복하였고, 여러 번 관직을 옮겨 좌령군(左領軍) 원외장군(員外將軍)이 되었다.
- (E) ① 의봉(儀鳳, 676~679) 연간에 토번(吐蕃)이 변경을 침략하자 흑치상지가 이경현(李敬玄)을 따라 토번을 쳤다. 유심례(劉審禮)가 적에게 죽자 이경현이 군을 거두고자 하였는데 진흙 뽕밭에 막혀서 나올 수 있는 곳이 없었다. 흑치상지가 밤에 결사대 5백 명을 거느리고 가서 적의 진영을 공격하니 토번의 수령 발지설(跋地設)이 군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경현은 이로 인해 돌아올 수 있었다. 고종이 그의 재략에 감탄해,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 겸 검교좌우림군(檢校左羽林軍)을 제수하고, 금 500량, 비단 500필을 내렸다. 이에 하원군(河源軍) 부사(副使)로 삼았다.
- ② (a)이때에 토번의 찬파(贊婆)와 소화귀(素和貴) 등이 적 3만여 명을 이끌고 와 양비천(良非川)에 주둔하였다. (c)흑치상지는 정예 기병 3천을 거느리고 적의 군영을 야밤에 습격해 죽이고 획득한 자가 2천이었으며, 소와 말을 획득한 것이 2만이어서, 찬파 등 혼자 말을 타고 도망갔다. (d)흑치상지를 발탁하여 대사(大使)로 삼았고, 또 물건 4천 필을 상으로 주었다. 흑치상지가 하원군의 적들 요충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병사를 늘려 지키기를 원했지만, 관련 비용을 옮기는 것이 어려워 마침내 멀리 봉수 7천여 개를 설치, 영전(營田) 500여 경(頃)을 열어 해마다 백만석을 징수하였다.
- ③ 개요(開耀, 681~682) 연간에 찬파 등이 청해(青海)에 주둔하자 흑치상지가 정병 1만을 이끌고 가 그들을 습격해 격파하고, 식량을 불태운 뒤 돌아왔다.
- ④ 흑치상지는 군에 있던 7년 동안 토번이 매우 흑치상지를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는 변경에 쳐들어오지 않았다.
- (F) 사성(嗣聖) 원년(684), 좌무위대장군(左武衛大將軍)이 되어서, 이에 좌우림군을 검교하였다.
- (G) ① 수공(垂拱) 2년(686), 돌궐(突厥)이 변경을 침략하였다. 흑치상지에게 명해 병사를 이끌고 가 그들을 막게 하였다. 그들을 뒤쫓다가 양정(兩井)에 이르자 갑자기 적 3천을 만났다. 흑치상지는 적이 싸우려 말에서 내려 갑옷을 입는 것을 보고, 마침내 기병 2백 여기를 거느리고 스스로 선봉에 서서 적진으로 곧장 진격하니 적들이 갑옷을 버리고 흩어졌다. 얼마 후 적의 대군에 이르렀다. 날이 곧 저물 시간에 흑치상지가 나무를 베서 군영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 봉수와 같게 하였다. 이때 동남쪽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자 적이 당의 구원병이 와서 서로 호응하는 것이라 의심하였다. 낭패라 여겨 밤을 틈타 도망갔다. 공을 인정받아 연국공(燕國公)에 봉해졌다.
- ② 수공(垂拱) 3년(687), 돌궐이 들어와 삭주(朔州)를 침입하였다. 흑치상지를 대총관(大總官)으로 삼고, 이다조(李多祚), 왕구언(王九言) 등을 부(副)로 삼았다. 돌궐을 쫓아 황화퇴(黃花堆)에 이르자 돌궐을 크게 격파하였다. 추격한 것이 40여 리였고, 적이 흩어져 사막

북쪽으로 돌아났다.

③ 이때 중랑장(中郎將) 찬보벽(爨寶璧)이 있었는데, 남은 적을 쫓기를 청하였다. 흑치상지는 제지하면서 찬보벽과 함께 멀리서 성원(聲援)하였다. 찬보벽은 적을 하루면 격파할 수 있다고 하고, 공을 탐내 먼저 갔는데, 흑치상지와 의논을 모의하지 않았다. 마침내 전군이 몰살당했다.

(H) 뒤이어 주흥(周興) 등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꾸미고 우응양장군(右鷹揚將軍) 조희절(趙懷節) 등과 모반하였다고 하면서 옥에 가두니 마침내 스스로 목을 매달고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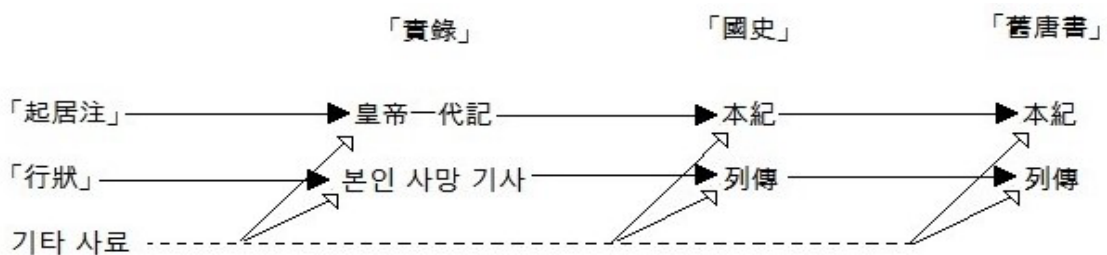
(I) ① 흑치상지는 일찍이 타던 말을 병사가 상하게 한 적이 있는데, 부사우사장(副使牛師獎)은 그 병사를 채찍질 할 것을 청하였다. 흑치상지가 말하기를 “어찌 개인의 말이 상하였다고 해서 관병을 때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를 용서해주었다.

② 전후로 상으로 받은 금과 비단 등은 모두 나누어 장사에게 주었다. 그가 죽으니 매우 애석하게 애석해하였다.

흑치상지전의 내용을 몇 개의 테마로 분류하였다. (A)~(I)의 기호로 분류하였으며, 각 테마를 세분화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 원형 숫자 기호를 붙였다. (E)의 ②에 보이는 작은 영문자와 이중 밑줄은 뒤에 언급하는 사료와 대응되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흑치상지의 경력 중에서 그가 역모를 참소당해 사망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사후에 그의 경력이 행장으로 정리되어 나온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본래 행군(行軍)의 총관(總管)급 인물이 죽으면 고인의 경력 등은 행장으로 정리되어 사관(史館)에게 전달된다. 그것이 「실록(實錄)」의 본인 사망 기사에 뒤에 편입되고 「국사(國史)」가 편찬되면서 열전에 기록된다. 최종적으로 정사(正史) 열전의 전거(典據)가 되는 자료인 것이다. 물론 고인의 개별 행장에 대해서는 번입관(蕃夷入官), 봉건(封建), 총관의 임명 등의 기록도 도도사관(都度史館)에게 전달되었으므로 행장 이외에도 고인의 경력을 복원할 수 있는 사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sup>11)</sup> 크게 사료(史料)의 계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의 그림 1이다.



[그림1] 당대 수사(修史)에서 『구당서』에 이르는 개념도

흑치상지의 행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열전의 사료 계통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문헌 사료에서의 흑치상지 관련 기사와 열전의 비교를 통해서 열전이 어떠한 전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흑치상지에 관련한 기록을 비교하여 열전에만 전해지는 고유 기사를 정리해보자. 다음 항목의 표1은 열전의 기사를 기준으로 다른 문헌과의

11) 石見精裕, 註8 앞의 논문; 福井重雅 「『舊唐書』-その祖本の研究序説」 (早稻田大學大學部東洋史研究室編 『中國正史の基礎的研究』,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1984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 표1 ] 흑치상지의 경력이 기록된 문헌자료

독자정보	『구당서』 (945년)	『신당서』 (1060년)	(구)『구당서』 (신)『신당서』					『자치통감』 (1084년)	『통전』 (801년)	『원화성찬』 (812년)
	흑치상지전	흑치상지전	본기	유인궤전	토번전	돌궐전	기타			○
◎※1	(A)	○								
◎	(B)	○ +								
◎	(C)	○								
△	(D)	○ +		(구)(신)○ ※2				○		
△	(E)①	○	(신)○		(구)(신)○			○	○	
△	(E)②	○	(구)(신)○					○		
◎	(E)③	○						※3		
◎	(E)④	○								
×	(F)	-	(신)○				(신)측천 무후전, 이경엽전	○		
◎	(G)①	○						○		
×	(G)②	○	(신)○			○		○	○	
×	(G)③	○				○		○		
×	(H)	○	(신)○					○		
◎	(I)①	○								
◎	(I)②	○								

◎ 열전 고유의 기사 혹은 열전이 전거로 생각되는 기사

△ 부분적으로 열전에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본기와 다른 열전 등에 상세한 기사가 있는 기사

× 본기와 다른 열전이 상세하며, 한편으로 열전에 고유의 정보가 없는 기사

○ 『구당서』 흑치상지전의 기사를 기준으로 해서 대응되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구당서』 흑치상지전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정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A)에 대해서는 『원화성찬(元和姓纂)』에 공통된 기사가 있지만, 열전 記事가 상세

※2 유인궤전의 기사는 (D)와는 다른 계통의 사료인가. 유인궤전의 기사를 『자치통감』에서 채용

※3 (E) ③에 대해서는 『자치통감』은 (E) ②의 양비천(良非川) 전투와 동일한 전투로 보고 있다

우선 『구당서』와 『신당서』의 열전을 비교하면, 대개 『신당서』 열전의 내용은 『구당서』 열전과 같고, 몇몇 문장은 요약되어 있다. 다만 (B)와 (D)에 추가 정보가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B)에 풍달군장(風達郡將), (D)에 양주자사(洋州刺史)라고 하는 관직을 역임했던 정보가 추가되어 있다. 이것은 『신당서』 편찬 당시에 『구당서』가 사용하지 않았던 사료를 참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B)와 (D)의 추가 정보가 무엇을 전거로 했던 것인지는 상세하지 않지만, 『태평광기(太平廣記)』에 『조야첨재(朝野僉載)』와 『어사태기(御史台記)』에 일문(逸文)으로 흑치상지에 관한 일화가 수록되어 있어,<sup>12)</sup> 이러한 수필적인 사료가 참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열전에만 전해지는 고유한 정보를 검토하고자 한다. 자세하게 논증하지는 않겠

12) 『朝野僉載』의 逸文은 『太平廣記』 卷143 徵卮9 흑치상지에 「唐將軍黑齒常之，鎮河源軍，城極巖峻。有三口狼入營繞官舍，不知從何而至。軍士射殺，黑齒惡之移之外，奏討三曲党項。奉勅許，遂差將軍李謹行充替。謹行到軍，旬日病卒」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당서』 권37 五行志 獸異條에 「永徽中，黑齒常之戍河源軍，有狼三頭，白晝入軍門，射之斃。常之懼，求代。將軍李謹行代常之軍，月餘卒」이라고 하고 있어, 대개 같은 내용의 설화를 전하고 있다. 『御史台記』의 逸文은 『太平廣記』 卷250 諧謔6 張文成條에 「唐司門員外郎張文成好爲俳諧詩賦，行於代。時大將軍黑齒常之，將出征，或人勉之曰，公官卑，何不從行。文成曰，寧可且將朱脣飲酒，誰能逐你黑齒常之」라고 되어 있다.

지만, 열전에서 남겨진 독자적인 정보는 (A), (B), (C), (E) ③, (E) ④, G ①, (I)이다. 또 부분적으로 독자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D)의 양주자사 역임, (E) ①과 ②의 사여(賜與)되었던 물품과 전투에서의 노획품(鹵獲品) 내역 등이다.

이렇게 열전에만 전해지는 독자적인 정보라는 점에 주목하면 흑치상지 열전은 독자적인 기술이 적지 않다. 그러나 흑치상지 개인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F)에 대해서는 관직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당서』 고종본기, 축천무후전, 이경업전을 보면, 그 해 이경업의 반란을 정벌할 때 흑치상지는 강남도행군대총관(江南道行軍大總官)에 임해져 있었고, 그 공로에 관한 승관(昇官)·이동(異動)도 보인다. 그러나 그 사적에 대해 열전은 그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흑치상지 묘지에는 이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

흑치상지와 관련된 사료 상황을 살펴보면 중요하게 여길 만한 사료가 있다. 『자치통감』 권202 당기(唐紀) 고종 영릉(永隆) 원년(680) 7월 조에는

가을 7월. 토번이 하원(河原)을 노략질하였다. 좌무위장군 흑치상지가 쳐서 퇴각시켰다. 흑치상지를 발탁하여 하원군 경략대사(經略大使)로 삼았다.

라고 한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고이(考異)가 붙어있다. 『자치통감고이(資治通鑑考異)』 권10에

실록에 (a)토번 대장 찬파 및 소화귀 등이 3만을 거느리고 하원에 침략해 병사를 양비천에 주둔시켰다. 신사(辛巳), (b)하서(河西) 진무대사(鎭撫大使) 중서령(中書令) 이경현이 무리를 이끌고 적과 황천(湟川)에서 싸웠지만 관군이 패배하였다. (c)부사 좌무위대장군 흑치상지가 정예 기병 3천을 거느리고 적의 군영을 야밤에 습격하여 죽이거나 사로잡은 이가 2천여 명에 이르자 찬파 등이 서둘러 퇴각하였다. (d)흑치상지를 발탁하여 하원군 경략대사, 이경현에게 명하여 선주(鄯州)를 안정시켜 그곳을 돕도록 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며, 「실록」이 인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록」의 내용을 보면 (E) ②와 대응된다. 또 『구당서』 권5 고종본기 조로(朝露) 2년 (680) 7월 조에

가을 7월. (a)토번이 하원에 침략해 양비천에 주둔했다. (b)하서 진무대사 이경현이 토번의 장(將) 찬파와 황중(湟中)에서 싸웠지만 관군이 패배하였다. (c)이 때 좌무위대장군 흑치상지가 전쟁에 힘써서 크게 토번의 군(軍)을 격파하였다. (d)그를 발탁하여 하원군 경략대사로 삼았고, 이경현에게 명하여 선주를 안정시켜 그곳을 돕도록 하였다.

라고 하는 것 같이 「실록」과 흡사한 내용이 있어, 본기는 당연히 「실록」의 계통을 가진 사료를 참조한 것이 된다. 즉 흑치상지전 (E) ② 기사의 구성과 내용은 「실록」의 황제(黃帝) 일대기에 의거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어쩌면 본기와 공통되는 다른 기사도 같은 성격이었

13) 다만 흑치상지전 (E) ②-(c)에서 戰果로 「羊馬數萬」을 획득한 것과, (d)에서 포상으로 「物四百匹」을 주었다는 정보는 『자치통감고이』가 인용한 「실록」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첫째 「실록」의 전거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資治通鑑考異』이 기록될 때 脫落 혹은 省略되어 흑치상지전에만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록」을 참조하고 있는 『구당서』와 『신당서』의 본기, 그리고 『자치통감』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가능성은 낮다. 둘째 『구당서』 흑치상지전이 다른 무언가의 사료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E) ①에 「金五百兩 絹五百匹」과 같이 사여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전에만 전해지는 정보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흑치상지와 관련된 사료는 단편적인 것이 몇 개인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인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열전을 편찬할 때 편찬

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흑치상지 열전의 기사는 주로 「실록」 계통의 사료를 참조해서 작성되었던 것이고, 각 설화와 일어났던 일로 구분해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흑치상지의 열전이 편찬되었을 당시 흑치상지 개인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 요인을 행장이 작성되지 않았던 것에서 구하는 것도 흑치상지가 죄를 지어 사망했던 사실에 입각한다면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흑치상지 열전은 흑치상지 생애 전체를 복원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실수가 상정(想定)되는 것이다.

## 2. 묘지에서 전하는 사적

흑치상지의 열전이 어떠한 성격의 사료인지는 위의 검토로 대략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묘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선 묘지의 구성과 내용 등 기본 정보를 살펴보자. 흑치상지 묘지<sup>14)</sup>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 I ) 대주(大周) 고인 좌무위위대장군(左武威衛大將軍) · 검교좌우림군 · 증좌옥검위대장군(贈左玉鈐衛大將軍) · 연국공 흑치부군(黑齒府君) 묘지문(墓誌文) 및 서(序)
- ( II ) 하늘을 위로 이고 있으면서 그 도(道)를 합하는 것은 땅(坤元)이다. 지성(至聖)은 높은 곳에 머무르며, 그 용무를 보는 것은 군대의 규율(師律)이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이러한 운수에 응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아름다운 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밀산(密山)에서 노닐어야 한다. 금성(金聲)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공자의 문하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 ( III ) 부군(府君)의 휘(諱)는 상지(常之)이고 字는 항원(恒元)으로 백제인(百濟人)이다. 그 조상은 부여씨로부터 나왔는데 흑치에 봉해졌기 때문에 자손들이 이로써 씨(氏)를 삼았다. 그 가문은 대대로 달술을 역임하였다. 달술의 직(職)은 지금의 병부상서(兵部尙書)와 같다. 본국(本國)에서는 2품관(品官)에 해당한다.
- ( IV ) 증조부의 휘는 문대(文大)이고, 할아버지의 휘는 덕현(德顯)이며, 아버지의 휘는 사차(沙次)로서, 모두 관(官)이 달술에 이르렀다.
- ( V ) 부군은 어려서부터 당당하였고, 기질과 정기가 민첩하고 뛰어났다. 가벼이 여기는 것은 기호와 욕망이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명예와 가르침이었다. □부(府)는 심오하여 맑은 것이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정감은 활달하여 넓은 것이 그 거리를 알 수 없었다. 여기에 거듭하여 온량(溫良)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친족들을 존중하며 스승과 어른을 두려워하였다. 어릴 때 소학(小學)에서 있으며 이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및 반마(班馬)의 양사(兩史)를 읽었다. 탄식하여 말하길, “구명(丘明)이 이를 부끄럽다고 하였고, 구(丘)도 또한 그를 부끄럽다 하였다. 진실로 나의 스승이다. 이것을 지나치면 어찌 더할 나위 없으랴.”라고 하였다. 20살이 채 되지 않아 지적(地籍)에 따라 달술을 받았다.
- ( VI ) 당 현경 중(656-660), 형국공(邢國公) 소정방을 보내 그 나라를 평정하자, 그 임금 부여릉(扶餘隆)과 함께 입조(入朝)하니 예속시켜 만년현(萬年縣)의 사람으로 삼았다.
- ( VII ) 인덕(麟德) 초(664-665), 인망(人望)으로 절충도위(折衝都尉)를 제수받고 웅진성(熊津城)에 진(鎭)하니 사중(士衆)이 크게 기뻐하였다. 함형(咸亨) 3년(672), 공(功)에 따라 총무장군(忠武將軍) · 행대방주장사(行帶方州長史)를 더하였다. 뒤이어 사지절사반주제군사(使持節沙

자가 「실록」을 기본으로 해서 열전의 문장을 작성하고, 이 외의 사료도 전거로서 사용해 정보를 추가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4) 본고의 해석문은 李希泌, 註1 앞의 책 ; 趙振華, 註3 앞의 책의 탁본 사진을 참조하고, 周紹良, 註3 앞의 책 해석문을 참조해서 작성하였다. 또 그 해석은 송기호, 註3 앞의 책도 참조했다. 이체자는 原則正字로 바꾸었다.

- 泮州諸軍事)·사반주자사(沙泮州刺史)로 옮기고 상주국(上柱國)을 제수받았다. 지공(至公)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고, 사사로움을 버리는 것을 큰 강령으로 삼았다. 천자(天子)는 이를 가상히 여겨 좌령군장군(左領軍將軍) 겸 웅진도독부사마(熊津都督府司馬)로 옮기게 하고, 더하여 부양군개국공(浮陽郡開國公)에 봉하여 식읍(食邑) 2천 호(戶)를 받았다.
- (VIII) 이때 덕음(德音)은 만물에 있었고, 조망(朝望)은 날로 높아졌다. 마침 포해(蒲海)에서 분(氛)이 일어나고 난하(蘭河)에서 사변이 있었다. 부군을 조하도경략부사(洮河道經略副使)로 삼아 실로 의지하였다. 부군은 품성이 빼어나고 굳했으며, 자질이 뛰어나 사리에 통달하였다. 힘은 능히 관(關)을 들어 올릴 수 있었음에도 힘을 자랑하지 않았다. 지혜는 능히 도적을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지혜를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 매번 감춤으로써 드러나게 하였고, 어리석음으로써 정(正)을 길렀다. 까닭에 그때 행동은 산처럼 서서, 여러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았다. 어짊은 간사함을 기르지 않았고, 위엄은 물(物)을 해치지 않는 바, 상벌(賞罰)에 필히 있었고, 권저(勸沮)에 어긋남이 없었다. 또한 오교(五校)의 대경(大經)으로 하여, 삼군(三軍)의 원길(元吉)이 되었다. 까닭에 사(士)는 감히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아랫사람은 그 잘못을 용납받지 못했다. 고종은 매번 그의 선함을 칭찬하니, 까닭에 사·군자(君子)로 그를 대하게 되었다. 서도(西道)에 있을 때 크게 훈공(勳功)을 쌓았다.
- (IX) 이때 중서령 이경현이 하원도경략대사(河源道經略大使)가 되자, 모든 군사가 절도(節度)를 받았다. 수군대사상서(水軍大使尙書) 유심례가 이미 패하여 죽자, 여러 장수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다. 부군은 홀로 높은 산마루와 같은 공을 세움으로써 그 고난을 극복하여, 좌무위장군이 되고, 경현을 대신하여 대사가 되니 품문에 따른 것이다. 부군은 곁에 음악과 여색(女色)이 없었고, 평소에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베개로 경서(經書)를 깔고, 제준(祭遵)의 준조(樽俎)가 있었다. 품에 명략(明略)을 품었으니 두예(杜預)의 깃발과 같다. 호진(胡塵)이 사라지니 변방의 말은 살찌고, 한(漢)의 달은 환히 빛나니 천호(天狐)가 사라졌다. 출사(出師)에는 칭송이 있었고, 개선하면 노래가 나왔다.
- (X) 좌응양위대장군(左鷹揚衛大將軍)·연연도부대총관(燕然道副大總管)으로 옮겼다. 수공(垂拱, 685~688) 말, 천명(天命)이 바야흐로 바뀌려 하였다. 골졸록(骨卒祿)은 미친 도적이거나 아직 그 미비함을 살피지 않았다. 경업은 역신(逆臣)으로 또 그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남쪽으로 회음(淮陰)을 평정하고 북쪽으로 모두(旄頭)를 섬멸하였다. 모두 힘이 되었다. 이로 인해 위세와 명성이 크게 떨치게 되었다.
- (XI) 제(制)를 내려 이르길, ‘국도(局度)는 온화하고 우아하고, 기질과 정기는 고상하며, 일찍부터 어질고 의로운 길을 추구하여, 마침내 염정(廉貞)의 영역을 밟았다. 말로써 행동을 보이고 배운 것으로 자신을 운택하게 하였으며, 더욱이 戎麾를 감싸 매번 誠效을 보였다. 연국공·식읍 3천 호를 봉할 만하다. 따라서 고쳐 우무위위대장군(右武威衛大將軍)·신무도경략대사(神武道經略大使)를 제수한다. 나머지는 그 전대로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이곳의 포효하는 용감한 병사들을 통솔하여, 저 흉악하고 미친 무리를 공격하였다. 호마(胡馬)는 남목(南牧)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한사(漢使)는 북유(北遊)의 원망을 하지 않았다. 영주(靈州)와 하주(夏州)는 요충지로서 요사스런 오랑캐들이 가득하였으나, 군의 위세와 명성은 이를 대신할 자가 없었다.
- (XII) 또 이동하여 회원군경략대사(懷遠軍經略大使)가 되어 유분(遊氛)을 막기도 하였다.
- (XIII) 후에 재앙이 여러 악(惡)에서 흘러 고고한 표적에게 일어났다. 한 번의 의심이 발생하자 옥과 돌이 섞이게 되었다. 일찍이 하옥(下獄)되었다가 이윽고 상궁(上穹)과 멀어졌다. 의로움은 목을 끊는 것과 같았고, 애처로움은 약을 먹는 것과 같았다. 나이 60세였다.
- (XIV) ① 장자(長子) 준(俊)은 어려서 가난(家難)에 겪었으며, 뜻은 유분(遺憤)을 씻어주는 것으로, 목숨을 노정(虜庭)에 맹세하여, 몸을 한절(漢節)에게 던졌다. 자못 빈번히 성효(誠效)를 드러내 여러 번 공명(功名)을 떨쳤다.
- ② 성력(聖曆) 원년(698), 원통한 부분을 이제야 살피, 이에 제를 내려 말하기를, “고인이 된 좌무위위대장군·검교좌우림위·상주국·연국공 흑치상지는 일찍이 의관(衣冠)을 이어받

아 두루 구책(驅策)을 거쳐, 누차 사률(師律)을 총괄하여 공을 쌓았다. 지난번 비언(飛言)에 연루되어 이에 옥에 갇혀 울분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의심받았던 죄가 구분되지 않는다. 비교하며 검찰(檢察)을 해본 바, 일찍이 모반의 상황이 없고 말에서 무고함을 느껴, 실로 한탄스럽다. 마땅히 설면(雪免)에 따라 영혼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니, 더욱 총장(寵章)으로서 표창하여 천양(泉壤)을 빛나게 하노라. 좌옥검위대장군(左玉鈐衛大將軍)을 더하는 것이 옳다. 훈(勳)과 봉(封)은 옛날과 같이 한다. 그 아들 유격장군(游擊將軍)·행난주광무진장(行蘭州廣武鎮將)·상주국 준은 어려서부터 가문에서 누구보다, 누차 진실한 충성을 드러냈으며, 위급함과 죽음도 피하지 않았고, 몸을 던져 나라를 지키니, 마땅히 기려야 한다. 이에 포상을 하고자 한다. 우표도위익부좌랑장(右豹韜衛翊府左郎將)을 제수함이 마땅하다. 훈은 옛날 그대로 하노라.”고 하였다.

③ 아아, 성력 2년(699) 1월 22일에 칙(勅)을 내려 말하길, “연국공의 아들 준이 아버지를 이장(移葬)하겠다고 요청하니, 물건 100가지를 주었다. 그 장사(將事)의 휘장, 일꾼 등 일체를 관청에서 공급하고 따라서 경관(京官) 6품 1명에게 명하여 가서 살피도록 하라.”고 하였다. 즉 그해 2월 17일에 받들어 망산의 남쪽이자 관도(官道)의 북쪽에 이장하였다. 이는 예(禮)이다.

(XV) 생각해보건대, 부군은 홀로 우뚝 솟은 산봉우리처럼 뛰어나니, 재간(才幹)의 표상이 되었다. 거울을 걸어 놓은 것처럼 허상과 융화되어 이해의 표상이 되었다. 말이 과하여 지엽(枝葉)이 없었다. 계획을 세우면 일이 이루어졌으니 본말(本末)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밤낮으로 나태하지 않았고 마음은윗사람에게 두었다. 곤경에도 바꾸지 않았고 뜻은 아랫사람에게 두었다. 군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면 생각에 잠기지 않았다. 선왕(先王)이 물려준 바가 아니면 기상(企想)을 하지 않았다. 군문(軍門)을 추곡(推轂)하여 변방에서 절개를 이루었다. 그러니 혈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 못하고, 명예를 칭찬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더할 수 없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를 보면 지혜롭다고 하고, 어진 사람이 그를 보면 어질다 하였다. 재물을 멀리하고 자신을 잊어버렸으며, 의(義)를 중시하고 물(物)을 우선으로 하기에 이르렀으니 머리를 친다고 해도 이해를 따지지 않았고, 몸을 무너뜨려도 그 길을 고치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겁 많은 사람도 그로 인해 용감하게 되고, 탐욕스런 사람도 그로 인해 청렴하게 되었다. 굳이 저울을 사용하지 않아도 근량(斤兩)은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 빠른 말의 준족으로 하여 느린 말이 멀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았다. 관리로서는 마음이 바르고 재간이 있었고, 나는 듯이 글을 쓰니 쌍벽을 이룰 정도로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도 스스로를 자책하였다. 인륜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능력을 갖추었으니, 잠자코 있더라도 천금이 그 값어치를 발휘하는 것 같았다. 진실로 지금의 시대에만 본받을 바가 아니고, 대체로 못사람으로부터 우뚝 솟은 인물의 표준이라 할 만하다. 영예와 굴욕은 반드시 있고 삶과 죽음은 타고난 것이다. 어차피 귀착하는 바가 동일하다면 어찌 부인의 손에서 목숨을 마치겠는가! 내가 일찍이 군대에 있을 때 의부(義府)에 있었는데, 그의 도리에 감복하였고 그 공을 칭송하며 이에 명문을 지어 말하길,

(XVI) 오악(五岳)을 말하는 사람은 천태(天台)가 병풍임을 알지 못한다. 사독(四瀆)을 바라보는 사람도 운주(雲洲)의 붉은 꽃을 깨닫지 못한다. 삼가 일제(日磧)는 한나라의 칼집이 되었다고 하고, 또 이해(里奚)는 진(秦)나라의 사다리가 되었다. 참으로 명철(明哲)을 이야기한다면, 여러 사람과 수절(殊絕)하고, 있는 곳마다 보배가 되었으니 어디에 가도 명석하다 아니할 것인가. 생각해보건대 공(公)이 동쪽에서 온 것은 마치 봄바람과 같고, 문물(文物)은 그로 인해 색을 드러냈으며, 소리와 광채는 그를 기다려 공을 이루었다. 유유한 깃발, 쓸쓸한 수레 덮개, 커다란 종을 치니 북이 울고 통소가 화답하는구나. 누구의 영화인지 말한다면, 내가 덕이 있다는 소리이다. 사방에 걸쳐 용마(戎馬)의 근심을 없앴고, 1000리에 공과 후(侯)의 성(城)을 지켰다. 공적은 이미 떨쳤고, 충성과 의로움도 이미 드러났다. 물(物)은 곧고 굳건한 것을 꺼리는 일도 있고, 행실이 높으면 도리어 해를 당하는 일도 있다. 가운데 높은 봉우리가 그 높이를 잃게 되었고, 어두운 무덤 속에는 빛이 사라지게 되었다. 천하가 그를

위해 애통해하고, 사해(四海)가 그의 현량(賢良)함을 애처롭게 여겼다. 천(天)이 이를 깊이 헤아리니,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포상이 미쳤도다. 내가 실로 감모하여 그를 기리는 글을 짓는다. 그에게 바쳐진 말들이 영원할 것이며, 그의 명성은 끝이 없을 것이로다.

살펴보면 꽤 상세한 관력(官歷)이 기록되어 있고, 열전에 없는 정보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묘지의 기록에 근거하여 흑치상지의 경력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묘지에서 전하는 흑치상지 經歷(경력)

시대(중국)	연호	서력	업적
高宗	顯慶中		백제 멸망 후, 入唐하여 万年縣 사람이 됨.
	麟德初	664	熊津城折衝都尉가 되어, 백제 옛 땅으로 감.
	咸亨 3년	672	공훈으로 忠武장군과 行帶方州長史를 더함.
	?	?	使持節沙泮州諸軍事·沙泮刺史로 임명되고 上柱國을 제수 받음.
	?	?	공로로 左領軍將兼軍熊津都督府司馬가 되고 浮陽郡開國公으로 봉해짐,
	(儀鳳 3년)	678	토번이 침입하니 逃河道經略副使로 임명됨, ※1
	同	同	군공으로 左武衛大장군兼檢校左羽林軍이 되어 李敬玄을 대신해 河源軍經略大使가 됨,
睿宗	垂拱年間	685-688	左鷹揚衛大장군·燕然道副大總管이 되어 돌궐의 骨咄祿 및 李敬業의 난에서 활약함.
	?	?	燕國公으로 봉해져, 右武威衛大장군·神武道經略大使로 임명됨.
	?	?	懷遠軍經略大使가 됨.
	(永昌 원년)	689	병에 걸려 사망. ※2

※1 묘지에는 年次 기록이 없지만 『구당서』 흑치상지전에 儀鳳中, 吐蕃傳에 儀鳳 3년이라고 한다.

※2 묘지에는 사망한 연대의 기록이 없지만, 『신당서』 본기, 『자치통감』에 永昌 원년이라고 하여, 이를 따랐다.

이 묘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첫째로 (XIV)에 있는 것처럼 흑치준 시기에 이르러 명예가 회복되어 무주(武周)시기인 성력 2년(699)에 묘지가 작성되었다는 것, 둘째로 제칙(制勅)에 따라 장례가 실시되어 묘지는 공적인 기록으로 인지되고 있었다는 것, 셋째로 (XV), (XVI)의 작성자로 '여(余)'라고 하는 일인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흑치상지와 친한 어떤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sup>15)</sup> 이상의 3가지가 있다.

### 3. 열전과 묘지의 비교

열전과 묘지의 대응 관계를 표시한 표3을 참고하면 몇 가지 업적에 대해서는 열전과 묘지의 기록이 대응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응하는 업적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백제 멸망부터 백제 부흥운동을 거쳐 입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열전의 (C), (D), 묘지의 (VI)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묘지에서는 흑치상지가 멸망 후 바로 당에서 출사(出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열전 (E), 묘지 (VIII), (IX)에 기록된 토번과의 전쟁

15) 「余」의 인물상에 대해서 張乃翥·張成昆, 註4 앞의 논문에는 흑치상지의 幕府에서 생전 舊交가 있던 자라고 했고, 排根興 「入唐百濟移民遺物の現狀及其分布」(同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2012年) p.117은 흑치상지 部下의 行軍長史 掌書記의 지위에 있던 자로 보아 흑치상지를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추측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그러한 추측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도 전투 내용은 서로 같지만, 경과나 인물의 관직에 차이가 있어 역시 다른 계통의 사료로 생각된다.

[표3] 열전과 묘지 대응표

	열전	묘지	비고
선조의 업적		(III), (IV)	
본인의 출신	(A)		
백제에서의 업적	(B)	(V)	열전에는 달솔·장군이라고 하는데 묘지에서는 달솔만 있음.
백제 멸망과 백제부흥운동	(C), (D)	(VI)	열전에 있는 백제부흥운동의 활동이 묘지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음.
熊津都督府에서의 업적		(VII)	
토번과의 전쟁	(E)	(VIII), (IV)	묘지의 逃河道經略副使 임명은 열전에 없음.
이경업 토벌	(F)	(X)	묘지에는 骨咄祿보다 뒤에 이경업의 이름이 등장함.
돌궐 骨咄祿과의 전쟁	(G)	(X)	
돌궐과의 전쟁		(XI), (XII)	묘지 중 ‘神武軍’, ‘懷遠軍’은 모두 돌궐의 진공에 대비한 군단으로 보임. (G)의 상세한 관력일까?
周興의 무고에 의한 죽음	(H)	(VIII)	묘지에는 무고였다는 것을 목매어 죽은 것으로 묘사됨.
故人の 인격에 대한 회고	(I)		
명예 회복		(XIV)	

\* (I), (II)는 誌題, 發語辭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제외. 또 (XV) 이후도 구체적인 업적이 아니므로 제외.

게다가 열전에는 언급되지 않은 정보가 묘지에 많다. 열전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정보로 (III)·(IV)에서 선조 업적, (VII)에서 웅진도독부에서의 업적, (XIV)에서 사후 명예 회복 사실이 있다. 또한 역임한 관직으로 (VIII)에서 도하도경략부사(逃河道經略副使) 임명, (XI)·(XII)에서 신무도경략대사, 회원군경략대사 역임 등 열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절의 검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전과 묘지는 완전히 사료 계통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양자를 대조하여 흑치상지의 경력(經歷)을 복원한다면 묘지의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열전의 부족함을 단순히 보완하는 작업은 적합하지 않다.

다음으로 묘지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유한 정보가 있고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문제이다. 분명히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전의 정보는 고유한 기록이 적고 중대한 결락을 의심케 한다. 하지만 묘지의 기술이 과연 열전의 기술을 정정하는 것인가, 혹은 보완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묘지의 사료적 성격을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흑치상지 묘지는 아들인 흑치준 시기에 만들어진 묘지이다. 게다가 흑치준이라고 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경위에서 흑치상지 묘지가 작성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고, 흑치상지 묘지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II. 흑치준의 활동과 흑치상지의 명예 회복

## 1. 흑치준 묘지와 그의 경력(怪歷)

흑치준은 문헌 사료에는 전혀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묘지가 출토됨에 따라 처음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경력에 대해서는 그의 묘지를 검토해야 한다. 흑치준 묘지<sup>16)</sup>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1) 대당(大唐)의 고인 우금오위(右金吾衛) 수익부중랑장(守翊府中郎將) 상주국 흑치부군(黑齒府君) 묘지명 및 서문(序文).
- (2) 공의 이름은 준이니, 즉 당나라 좌령군위대장군(左領軍衛大將軍)·연국공의 아들이다. 나라를 바다로 나누니, 아름다움을 현허(玄虛)의 부(賦)에서 볼 수 있다. 태국(沱國)에서 우두머리를 칭하매, 그 소중함을 태충(太沖)의 말에서 얻을 수 있다. 종락(種落)을 맹렬히 떨치고, 벼슬을 중국에 하였구나. 공을 세우고 일을 이루니 이름이 월(月)의 깃발에 걸렸다. 효성스럽고 충성스러우니 덕을 계년(繫年)의 역사에 기록한다.
- (3) 증조부는 가해(加亥)로 본국의 자사를 역임하였고, 할아버지는 사자(沙子)로 본국의 호부상서(戶部尚書)를 역임하였다. 모두 옥(玉)은 형산(荊山)에 던졌고, 주(珠)는 울포(蔚浦)에서 빛났다. 금의(錦衣)를 일역(日域)에서 빛냈으며, 풍화(風化)를 크게 행하였다. 선서(仙署)를 하늘 끝에서 어루만지니 성대(星臺)의 시기도 바로 섰다. 아버지는 상지로, 황조(皇朝)의 좌무위대장군·상주국·연국공이 되었고, 더하여 좌령군위대장군이 되었다. 재주는 고신(孤臣)에서 으뜸이었고, 행동은 김씨(金氏)에서 빛났다. 공은 천지(天地)를 덮었으니 증유(仲孺)의 장군을 맡았다. 상(賞)은 산하(山河)에 무성하니 소석(邵奭)의 연국(燕國)에 봉해졌었다. 죽어서도 그러하였으니 포증(褒贈)하여 영예가 가득하였다.
- (4) ① 공은 뜻을 장군의 가문에서 품어, 도겸(陶謙)이 장난치듯 곧 깃발을 펼쳤다. 이광(李廣)이 살았던 것처럼 반드시 군진(軍陣)을 그렸다. 이런 까닭으로 연합(燕頷)의 원략(遠略)을 짚어 지고, 원비(猿臂)의 기공(奇工)을 펼쳤다.  
② 스무 살이 되어 별주(別奏)로서 양왕(梁王)을 따라 □서도행(□西道行)을 쫓으니 군공으로 유격장군(游擊將軍)을 제수받고, 우표도위익부좌랑장에 임명되었다.  
③ 돌연 우금오위익부중랑장(右金吾衛翊府中郎將)·상주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높은 구름의 누각을 밟았고, 고개 숙여 추성(秋省)의 놀이를 따랐다. 진(晉)나라 때의 아름다운 담비 꼬리를 꽃앓고, 한(漢)나라 때의 수레와 의복을 갖추었다.
- (5) 바야흐로 7대의 경사를 전하길 간절히 바라니 이로써 서한(西漢)의 영광을 누리하고자 하였다. 어찌 생각했으랴, 병의 □를 얻어 곧 북두(北斗)의 이름을 따를 것을. 신룡(神龍) 2년(706) 5월 23일에 병환으로 낙양현(洛陽縣) 종선(從善)의 □에서 사망하였다. 나이 31세였다. 아아, 슬프도다. 성부(城府)에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나라가 진체(殄瘁)하였다. 생각건대, 공은 뜻과 기개가 웅렬(雄烈)하였으며, 재능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 최상의 공을 세웠고, 힘들여 싸우면서 전장에서 고생하였지만, 기구하게도 우연히 어려워, 마침내 후위에 봉해지지도 못하였다. 갑자기 良돌이 죽게 되니, 조야(朝野)가 슬퍼하고 아깝게 여겼다.
- (6) 그런즉 신룡 2년 경오(景午)년 8월, 초하루 임인(壬寅)일, 13일에 북망산(北邙山) 언덕에 장례를 치렀다. 이것이 예(禮)이다. 도(途)에 초만(楚挽)이 이어지고 로(路)에 주소(周籥)가 이어졌다. 광중을 문득 열어 관을 넣고 단기에 이르렀다. 땅을 높여 봉토 쌓기를 이미 끝내고, 취백(翠柏)이 둘레에 푸르다. 여한(餘恨)을 매옥(埋玉)에 기록하고자 하니, 비석의 글자가 생금(生金)이길 바란다. 새겨서 말하길,
- (7) ① 아아, 후당(后唐)에서 현명한 사람을 구하여 다스리니, 퇴당(頽當)이 쓰이게 되고 투후(投侯)가 들어와 벼슬을 얻었다. 서융(西戎)의 고신(孤臣), 동이(東夷)의 자(子), □를 구하여

16) 黑齒俊 墓誌의 釋文도 註12와 같다.

-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조그마한 착한 일들을 기록한다.(이것이 첫째이다.)
- ② 선(善)을 기록하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가? 이에 갓끈을 더하는 것을, 충(忠)으로 업적을 세우고, 효(孝)로 이름을 떨쳤다. 미쁘구나! 아버지여, 일찍이 맑고 곧은 심성에 힘쓰니. 효성스럽구나! 아들이여, 아버지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았도다.(이것이 둘째이다.)
  - ③ 아버지의 명성이란 무엇인가? 장군 가문으로서 무덕(武德)이 있어, 명을 분수에 맞게 받들어, 공을 이역(異域)에서 세웠다. 감히 화난(禍難)을 평정하고, 지천의 분특(氛慝)을 제거하였으니, 종(鍾) 소리는 현명함을 기리는 것이고, 수레와 의복은 덕을 드러내는 것이다.(이것이 셋째이다.)
  - ④ 수레와 의복이란 무엇인가? 금오(金吾)에서 가장 많이 받았으니, 아름답도다! 부자(夫子)여, 이처럼 총애를 받았구나. 높이 누각은 구름에 잇대었고, 담비 꼬리는 빛이 거둬하였으며, 이에 착한 일을 쌓았으니 여경(餘慶)이 전해지기를 바란다.(이것이 넷째이다.)
  - ⑤ 여경이 이어지지 못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대들보가 이와 같이 무너져도 저기 푸르른 것이 하늘이다. 슬픔이 호리(蒿里)에 퍼지고, 울음이 송천(松阡)에 울리는데, 한번 밝은 날에 묻히니, 영원히 황천(黃泉)에서 머물 것이로다.(이것이 다섯째이다.)

흑치준 묘지는 흑치상지 묘지와 비교하면 글자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구성은 전형적인 당대 묘지이다. 내용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그가 사망한 해(沒年)와 나이(享年)이다. (5), (6)에 따르면 신룡 2년(706)에 나이 31살에 죽었으며, 같은 해 망산에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 사망한 해로 단순 계산한다면 그가 태어난 해는 676년이 된다. 즉 아버지 흑치상지가 죽은 689년에 (흑치준의) 나이는 14살이었으므로 출사(出仕)하기 전이었다고 추측된다.

묘주(墓主)의 업적은 (4)에 기록되어 있으나, 극히 간단한 정보만 기록되어 있다.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전하는 정보는 적지만, 다음으로 검토할 것처럼 간과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

[표4] 흑치준 경력

시대(중국)	연호	서력	업적
武則天	天冊萬歲 원년?	695?	梁王(武三思)이 서역으로 정벌을 갈 때 종군하다.*
	同年	同	위 기록의 공으로 遊擊將軍이 되고, 右豹韜衛翊府左郎將에 임명되었다.
	?	?	右金吾衛翊府中郎將으로 전임하고 上柱國을 제수 받았다.
中宗	神龍 2년	706	5월 23일 洛陽縣 從善坊에서 죽음. 향년 31세.
	同年	同	8월 13일 망산에 장사됨,

\* 이 업적은 묘주의 나이에서 역산한다면 695년에 있었던 일이 된다. 이 표에서는 일단 묘지를 따랐으나, 그 年次에는 의문이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 2. 흑치준의 정치적 입장과 흑치상지의 명예 회복

흑치준은 흑치상지 묘지의 (XIV) 부분을 보면, 성력 원년(698)에 유격장군 행난주광무진장 상주국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었다. 난주(蘭州)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숙성(甘肅省)에 있다. 또 흑치준 묘지 (4) ②에 ‘양왕을 따라 □서도로 종군하였다’고 하는 것처럼,<sup>17)</sup> 정벌군

17) 「西道」 전의 글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葷」으로 보는 釋文과 「熒」의 이체자로 보는 釋文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탁본 사진을 보면 어떤 글자로도 확정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판독 불능으로 「□

에 종군하였다. 아버지인 흑치상지가 토번 및 돌궐과의 전쟁 등 군사 활동에서 활약한 것처럼 흑치준도 무인(武人)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흑치준은 (4) ②에서 본 것과 같이 군공(軍功)에 따라 우표도위익부좌랑장이 되고 다시 우금오위익부중랑장에 임명되어 중앙에서 무관으로서 일하였다. 시기에 대해서는 흑치준 묘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흑치상지 묘지 (XIV)의 기록을 신뢰한다면 성력 원년이 된다.

이처럼 입신출세(立身出世)를 거듭하게 된 흑치준에게는 반역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평가가 불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뒤집을 필요가 있었다. 때마침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흑리주흥(酷吏周興)은 이미 실각했기에<sup>18)</sup> 아버지의 오명을 씻기 좋은 시기였다.

그래서 주목할 것이 당시 권력자 무삼사(武三思)에 대한 접근이다. 흑치준 묘지 (4) ②의 기록에 따르면 흑치준은 양왕을 따라, 그의 별주(別奏)로서 ‘□서도로’ 향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왕이란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조카인 무삼사이다.

무삼사는 측천무후가 실권을 장악하자 무(武)씨 일족으로서 하부상서(夏部尙書)가 되었다. 무주(武周) 시기에는 양왕으로 봉해졌으며, 사촌인 위왕(魏王) 무승사(武承嗣)와 함께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중종(中宗)이 복위하고 당이 부활한 이후에도 권좌에 남아, 무주 시기 장안(長安) 연간(701~704), 자식인 무승훈(武崇訓)을 중종과 위후(韋后)의 딸인 안락공주(安樂公主)와 혼인시키는 등 중종과 위후의 신뢰를 얻었다. 이처럼 권세를 자랑하던 무삼사이었다. 하지만 위후·무씨의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 이중준(李重俊)이 병사를 일으켰을 때 거병(擧兵) 자체는 실패하였지만, 난(亂)이 진행되는 중에 무삼사·무승훈 부자가 살해되었다.<sup>19)</sup> 이때가 신룡(神龍) 원년(707)으로 이때까지 무삼사는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흑치상지의 명예 회복보다 후의 것이지만 무삼사가 당 황실 관계자의 명예 회복에 관여한 사료가 있다. 『구당서』 권76 월왕(越王) 정전(貞傳)에

신룡 초에, 시중(侍中) 경휘(敬暉) 등은 충(沖) 부자의 황가(皇家)를 익대(翼戴)하니, 의(義)는 사직을 존치함으로써 그 관작을 회복해줄 것을 청하였다. 무삼사가 소용상관씨(昭容上官氏)에게 명하여 중종의 조서를 대신해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어 일찍이 측천무후에 반기를 들었던 월왕 정(貞)의 명예 회복의 움직임이 무삼사에 의해 저지되었다. 무삼사의 권력은 황제의 재가도 좌우하였으며, 명예 회복도 그의 의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흑치준이 무삼사에게 접근한 것은 명예 회복의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무삼사의 원정은 묘지의 기록에 따르면 흑치준이 20살 되던 때인 695년의 일이 된다. 그래서 만세통천(萬歲通天) 원년(696), 무삼사가 유관도안무대사(榆關道安撫大使)로 임명되어 거란(契丹)의 침입에 대비하는 기사에 주목하고자 한다.<sup>20)</sup> 『자치통감』 권205 당기 측천무후 만세통천 원년 7월 조에

西道』로 판독하고, 원정군의 행군로를 보여주는 지명으로 보았다.

18) 『舊唐書』卷186 上 酷吏傳上 周興傳 [天授]二年十一月。與丘神勳同不獄，當誅，則天特免之，徙於嶺表。在道爲讎人所殺。

19) 『舊唐書』卷183 武三思 崇訓傳, 『新唐書』卷206 武三思傳 등을 참조.

20) 『자치통감』 권205 唐紀 則天武后 萬歲通天 元年 7月 條에도 같은 기사가 있다.

가을 7월 신해(辛亥), 춘관상서(春官尙書) 양왕 무삼사를 유관도안무대사로 삼고, 요숙(姚瑋)을 부(副)로 하여 거란에 대비하였다.

고 한다.<sup>21)</sup> 무삼사가 유관도안무대사로서 정벌에 관여하고 있으며, 695년과 시기적으로 매우 가깝다. 유관(揄關)은 승주(勝州)방면으로 현재 중국 내몽골자치구 오르도스시 준거얼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도’ 원정이란 유관도안무대사로서 거란에 대비하기 위해 파견된 사건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해당 행군에서 흑치준은 군공을 세움으로써 무삼사의 눈에 들었을 것이다.

또 흑치준과 무삼사의 관계를 생각함에 있어 흑치준이 별주로서 행군에 따라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별주란 당대의 군대에서 겸인(僉人)과 함께 장군·총관 등의 장교 옆에서 경비 등을 맡은 하급 막료이다. 상사(上司)인 무장에 의해 소환되었기에 그 지위는 높지 않지만, 고급 장관으로 출세하는 길 중 하나였다.<sup>22)</sup> 그러므로 발탁한 장교와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흑치준과 무삼사는 강한 유대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흑치준 등 백제 유민과 무삼사의 밀접한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사료가 존재한다. 『구당서』 권6 축천무후본기 연재(延載) 원년(694) 8월에

양왕 무삼사이 제번(諸蕃)의 존장(尊長)을 권솔하여 많은 동도(東都)의 동철(銅鐵)을 모아 천추(天樞)를 단문(端門) 밖에 만들어, 송(頌)을 세우되 위의 공업(工業)을 기록하여 전하기를 주청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 무삼사가 축천무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천추의 기둥을 세울 것을 아뢰고 있다.<sup>23)</sup>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제번의 존장을 무삼사가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天樞의 완성에 대해서는 『자치통감』 권 205 당기 축천무후 천책만세(天冊萬歲) 원년(695) 조에

여름 4월에 천추가 완성되었다. 높이는 105척(尺)이고, 지름은 12척이며, 8면마다 각기 지름이 55척이었다. 아래는 철산(鐵山)을 만들었고, 둘레는 170척이었고 동(銅)으로 반룡(蟠龍)·기린(麒麟)을 만들어 에워싸게 하였다. 위로는 등운(騰雲)이 노반(露盤)을 받들고, 지름은 3장(丈)이었고, 사룡인(四龍人)이 서서 화주(火珠)를 받들고, 높이는 1장이었다. 공인(工人) 모파라(毛婆羅)가 만들고, 무삼사가 문장을 짓고, 백관(百官) 및 사이(四夷) 추장의 이름을 새겼으며, 태후가 스스로 그 방(榜)을 써 대주만국송덕천추(大周萬國頌德天樞)라고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천추 자체에 사이 추장의 이름도 새겼다고 한다.

천추의 건설에 참여한 사이에 해당하는 이민족으로서 우선 고구려 유민을 꼽을 수 있

21) 『구당서』 권89 姚瑋傳에도 「尋屬契丹犯塞，命梁王武三思爲榆關道安撫大使，瑋爲副使以備之」라고 되어 있어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22) 西村元佑 「唐代敦煌差科簿の研究」(西域文化研究所編 『西南文化研究 3-中央アジア古代語文獻』, 東京, 法藏館, 1960年); 曾我部諱雄 「日唐の僉人制度」(『律令を中心とした日中關係詞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8年); 馬俊民 「僉人·別秦考弁」(『南開學報』1981-3, 天津, 1981年); 孫繼民 「吐魯番所出《唐尙書省牒》殘卷考譯」(『敦煌研究』1990-1, 蘭州, 1990年); 劉進宝 「唐五代“隨身”考」(『歷史研究』2010-4, 北京, 2010年); 朱艷桐 「唐代僉人研究」(蘭州, 大學碩士論文, 2013年).

23) 則天武后의 天樞 건설 배경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羅光林 「景教徒阿羅憾等爲武則天皇后營造頌德天樞考」(『清華學報』新1-3, 台北, 1958年); 任大熙 「則天武后 통치시기의 정치와 인물」(黃元九教授 定年紀念 論叢 刊行委員會 『東아시아의 人間像』, 서울, 도서출판 혜안, 1995년) 등 참조.

다.24) 천남생(泉男生)의 아들 천헌성(泉獻誠) 묘지<sup>25)</sup>에

[천수(天授)] 2년(691) 2월에는 칙서를 받들어 검교천추자내사(檢校天樞子來使)로 임명되고 현무(玄武) 북문(北門)에서 대의(大儀)에 필요한 동(銅) 등의 운송을 감독하는 임무도 겸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 천헌성이 천추를 건설할 때 동 운송의 임무를 맡았음을 전하고 있다. 또 고구려 유민인 고족유(高足酉) 묘지<sup>26)</sup>에

증성(證聖) 원년(695)에 천추를 조성함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자식처럼 찾아와 조각하여 이에 마쳤다. 창공을 가로질러 곧게 솟아올랐고, 황왕(皇王)을 나타냄은 의기양양하다. 명주(明珠)가 밝은 빛을 내뿜매 해와 달을 거느리고 이어 빛나고, 상서로운 용이 내려와 놀매 연기와 구름에 의지하여 고개를 든다. 장하다! 그 모습이어. 이때 곧바로 고려번장(高麗蕃長) 어양군개국공(漁陽郡開國公) 식읍 200호에 봉해졌다.

라고 되어 있어, 고족유는 천추의 완성을 기회로 고려의 번장과 어양군개국공에 봉해졌다고 한다. 아마 천추에 새겨진 사이의 수장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무삼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천추 건설에는 고구려 유민을 비롯한 ‘사이’의 이민족이 참가하고 있었다.<sup>27)</sup> ‘사이’는 중화(中華)에서 본 동서남북의 각 이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구려 유민과 같은 동이가 참가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당시 당에 거주하면서 동이로 분류되던 백제 유민도 관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sup>28)</sup>

따라서 흑치준이 자신의 입신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씨와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하는 정치적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생각된다. 틀림없이 흑치상지 묘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성력 원년(698)에 작성된 것이다.

게다가 천추 건설은 흑치준이 무삼사의 원정에 종군한 695년 무렵의 일이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백제 유민인 흑치준이 사이의 일원으로서 무삼사와 교류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무삼사와 관한 것은 아니지만 武氏와 백제 유민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가 있다. 무삼사의 사촌인 무승사의 둘째 아들 무연수(武延秀)의 어머니 출신에 대해 『신당서』 권206 무승사전은

연수(延秀)의 어머니는 본래 대방(帶方) 사람이다. 그 집안이 죄에 연루되어 해관(奚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매혜(妹惠)로 승사(承嗣)에게 주어, 연수를 낳았다.

라고 전한다. 무연수의 어머니는 대방, 즉 백제 사람이지만 어떠한 벌에 연루되어 내시성(內侍省) 해관국(奚官局)의 노비가 되었으나 그 아름다움과 지혜로 무승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sup>29)</sup> 즉 무씨는 백제 유민과도 친척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흑치준이 무삼

24) 排根興 「高麗移民高足酉墓誌銘相關問題」(同, 註13 앞의 책).

25) 『唐代墓誌彙編』上 大足00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年).

26) 『唐代墓誌彙編統集』萬歲通天00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年).

27) 羅·任, 註21 앞의 논문에 의하면 天樞 건설에는 소그드 출신의 阿羅憾 등 인물이 참여하고 있던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 사실은 당시 四方 이민족이 天樞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것을 시사한다.

28) 唐에 거주했던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은 그 처우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稅制의 규정상 並稱되는 등 법적으로는 같은 취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仁井田陞著·池田溫編集代表 『唐令拾遺補』(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7年, pp.768~769)에 의하면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은 軍役이 부여되면, 동시에 課役이 면제되었다고 한다.

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흑치준은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의 반역 오명을 지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무삼사에게 접근, 자신의 훈공, 주흥(周興)의 실각 등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흑치상지의 명예 회복이 실현될 수 있었고, 흑치상지 묘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흑치준 묘지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하겠다. 흑치준을 둘러싼 상황을 이상과 같이 파악한다면 흑치준 묘지에서 무삼사와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흑치준이 죽고 묘지가 작성된 706년 당시에 무삼사의 권세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백제 유민과 무씨의 강한 유대를 상정하게 한다. 따라서 흑치준 묘지 그 자체도 당시 백제 유민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관계있으며 무씨의 권세를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흑치상지 묘지가 그 아들인 흑치준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 유민의 시점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흑치준의 입장은 당시 권력자나 당 왕조의 정국을 배려해야 했기 때문에 오직 백제 유민이라고 하는 속성으로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흑치상지 묘지는 단지 백제사 기록으로 다룰 수 없는 사료라 하겠다. 흑치상지의 실상에 다가서려 한다면 묘지의 이러한 특징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III. 흑치상지 묘지의 기록과 그 업적의 복원

#### 1. 열전을 복원한 묘지의 기록

우선 단순하게 열전을 보완할 수 있는 묘지의 기술(記述)에 대해 검토해보자. (VIII), (IX)에 나타난 토번과의 전쟁 속에서 흑치상지는 도하도경략부사로 임명되고 있다. 경략부사 임명은 열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통전』 권190 변방전(邊防典) 서용 토번에

의봉(儀鳳) 3년(678), 공부상서(工部尙書) 유심례를 보내 도하군경총관사(逃河軍經總觀使)로 삼고, 군사 18만을 거느리고 그를 정벌하였으나, 청해(靑海)에서 싸우다 패배하여 진(陣)으로 몰렸다.

고 하여, 유심례가 도하군경총관으로 임명된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그림2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흑치상지가 도하군경총관인 유심례의 부하로서 출진(出陣)하는 경우 당초에는 도하도경략부사이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묘지의 기록은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

[吐蕃侵入] → [李敬玄·劉審禮 출전] → (흑치상지 從軍?) → [劉審禮 잡히다]  
→ 【흑치상지의 야간 습격 승리】 → 【포상과 河源軍 副使 임명】 …  
[ ] 확실한 사건 ( ) 추측 【】 흑치상지 事績  
[그림2] 흑치상지 열전 (E)의 文脈

29) 武延秀의 어머니가 백제인이었다고 하는 지적은 排根興 「入唐百濟移民研究的現狀」(同, 註13 앞의 책)에 의해 알려지고 있지만, 사료의 典據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Ⅺ), (Ⅻ)의 돌궐과의 전쟁에서 보이는 신무도경략대사와 회원군경략대사 등의 임관 기록도 열전에는 없는 관력(官歷)을 보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흑치상지전의 말미 (G) ③에서 (H)에 걸친 흐름에 주목하면 열전은 찬보벽 한 건이 그 후의 전락(轉落)과 옥사(獄死)로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 게다가 그 찬보벽은 『구당서』 권194 상(上) 돌궐전에서

우감문위중랑장(右監門衛中郎將) 찬보벽은 또 정병(精兵) 만 3천 명을 이끌고 장성 밖으로 나가 (적을) 추격했다가 도리어 골돌룩에게 패해 전 부대가 모두 몰살당했으며 보벽(寶璧)만 경무장하고 말을 달려 도망치듯 돌아왔다. 이전에 보벽은 흑치상지가 적을 격파하는 것을 보고 표(表)를 올려 몸소 그 여당(餘黨)을 추격하기를 청했는데, 측천이 조칙을 내려 상지와 보벽이 서로 의논하고 멀리서 성원(聲援)하라고 했다. 보벽은 적을 하루 정도면 격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군공을 탐내 먼저 행군했으며, 또 사람을 보내 장성 너머 2천여 리 밖까지 가서 적의 동태를 염탐하게 했는데, 원진(元珍) 등의 부락이 모두 대비를 갖추지 못한 것을 보고 바로 군대를 이끌고 습격했다. (적진에) 이르자 사람을 보내 적에게 알리고 출전할 준비를 갖춘 다음에 나가라고 명령을 했다가 결국 적에게 패배했고, 보벽은 이 패전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다. 측천은 크게 노해 골돌룩의 이름을 불졸룩이라고 고치게 했다. 원진은 이후에 병사를 이끌고 돌기시(突騎施)를 토벌하다가 전장에서 죽었다. 골돌룩은 천수(天授)년간에 병으로 죽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패전 후 주살(誅殺)되었다. 흑치상지전에 따르면 (H)와 같이 찬보벽의 패전이라고 하는 불온한 사건이 있고, 그 후에 흑치상지도 죄를 뒤집어썼다고 하는 맥락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이후의 상세한 관력 등은 열전에서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가능성은 찬보벽과의 사건이 수공 3년(687)이고,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 영찬(永昌) 원년(689)이므로 그 사이 2년 정도의 경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보강되어야 한다. 더구나 신무도(神武道)와 회원군(懷遠軍)은 돌궐의 수비에 관계된 거점이며 묘지의 경력은 열전에서 생략된 돌궐에서의 정벌 활동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묘지의 관력은 2년간의 공백을 보완하는 기록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흑치상지 묘지 (X)에 따르면, 연연도부대총관이 되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당서』 권194 상 돌궐전 골돌룩조에 대응 기사가 있는데

[수공] 3년, 골돌룩 및 원진이 또 창평현(昌平縣)을 침입해 노략질하자 조칙을 내려 좌응양위대장군 흑치상지에게 격퇴해 물리치게 했다. 그해 8월에 다시 삭주를 노략질하자 다시 흑치상지를 연연도대총관(燕然道大總管)으로 삼아 황화퇴(黃花堆)에서 적을 공격해 크게 격파하였다. 도망가는 적을 40여 리 추격하자 적의 무리가 드디어 적북(積北)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고 전한다. 이에 따르면 돌궐의 골돌룩을 정벌할 때 흑치상지는 연연도(燕然道)로 파견되고 있어 그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부(副)’라는 글자는 없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마츠가 『구당서』 권77 위대가전(韋待價傳)에

수공 원년(685) 10월, 다시 연연도행군대총관(燕然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돌궐을 격파하였다. 이듬해 봄에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흑치상지가 수공 3년 대총관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위대가(韋待價)

가 다른 대총관으로 파견되었고 이곳을 가진 흑치상지가 당초 ‘부’대총관이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sup>30)</sup>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면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연연도 대총관이 되었다는 업적이 묘지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된다. (X)의 기사는 골돌록 정벌과 이경업 정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원정을 거의 하나의 업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이의 관력을 간략히 하기 위해 대총관의 기록을 생략한 것이 아닐까. 약간의 의문이 남지만 일단 마츠의 견해에 따라 부대총관을 대총관이 되기 이전에 역임하였다고 이해해두겠다.

## 2. 윤색(潤色) · 개변이 의심되는 묘지의 서술

제2장에서 검토한 것을 근거로 하면 흑치상지 묘지의 기록은 흑치준의 정치적 상황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몇 가지 서술에 대해서는 윤색이나 개변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열전에 믿음을 더 가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테면 입당 과정에 관한 기록이다. 열전의 (C), (D)에서 백제 멸망 후, 흑치상지는 임존성에서 백제 부흥운동에 참가하여 663년에 이르러 고종이 보낸 사자(使者)의 설득에 따라 항복했다고 한다. 한편 묘지에는 (VI)와 같이 흑치상지가 당의 정벌에 멸망한 이후, 즉시 당에 복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역시 반역자 흑치상지의 오명을 씻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당에 저항했던 사실은 묘지에서 인멸하였을 것이다.<sup>31)</sup> 즉 흑치상지의 경력은 일관되게 당에 충의(忠義)를 다한 사람이어야 했다. 따라서 그의 입당 과정에 대해서는 열전이 더 실상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또한 다음으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 (III), (IV)의 계보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계보에 주목하여 흑치씨가 백제 왕족에서 분화되었다고 하는 것이나 달솔을 대대로 세습하였다고 하는 것 등은 백제 사회를 직접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였다.<sup>32)</sup>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흑치상지 묘지는 단순히 백제사 기록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사료이다. 따라서 이 계보에 관한 서술이 중국적인 윤색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흑치상지 묘지와 흑치준 묘지에 기록된 선조의 이름을 표5와 같이 정리하면 선조의 이름이 다르다. 흑치준 묘지에는 토속적인 분위기를 가진 가해(加亥)라고 되어 있지만, 흑치상지 묘지에는 당인풍(唐人風)의 덕현(德顯)으로 되어 있다.<sup>33)</sup> 또한 흑치준의 묘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흑치상지의 증보부(曾祖父)가 흑치상지 묘지에 문대(文大)라고 하는 한어(漢語)로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sup>34)</sup> 이처럼 흑치준 묘지의 이름이 더 중국적이지 않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남겼으며 흑치상지 묘지는 중국적인 윤색에 따라 선조의 이름을 개변하였다고 생각된다.

30) 馬馳, 註4 앞의 논문.

31) 李之童, 註4 앞의 논문은 일반적으로 墓主의 聲望에 불리한 것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墓誌에서는 抵抗의 사실을 삭제했다고 추측한다. 東有春·焦正安, 註4 앞의 논문 ; 陳賢, 註4 앞의 논문도 거의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32) 註5 위의 모든 논문.

33) 宋基豪, 註3 앞의 책은 德顯을 중국식, 加亥를 백제식의 이름으로 보았지만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李文基, 註5 앞의 논문은 德顯이 보다 중국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후세에 개명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34) 沙次에 대해서는 흑치준 묘지에는 沙子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음통의 가능성도 있어 토속적인 이름인지, 漢人적인 이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표 5] 흑치씨 선조의 이름 표기

흑치상지 묘지 (IV)		흑치준 묘지 (3)
文大 (曾祖)	-	(高祖父) 《없음》
德顯 (祖父)	-	(曾祖) 加亥
沙次 (父)	-	(祖父) 沙子
常之 (본인)	-	(父) 常之
	-	(본인) 俊

그래서 백제에서 달솔을 세습하였다고 하는 기록에 대해서는 흑치준 묘지에는 ‘본향자사(本鄉刺史)’, ‘본향호부상서(本鄉戶部尙書)’와 같이 중국식 관호(官號)로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는 백제에서 위와 같은 중국식 관직이 설치되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마도 백제에서의 업적을 중국에서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관호를 중국식으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즉 자기 가문의 출신을 동이의 백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개변한 윤색의 일환이었다고 생각된다.<sup>35)</sup>

이 점을 근거로 한다면 중국적으로 묘사된 선조들의 업적이 모두 의심스럽다. 흑치씨가 분봉 받았다고 하는 것도 중국적인 성씨(姓氏)의 발생에서 유추된 표현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르며<sup>36)</sup> 선조의 이름이나 업적 등도 그다지 확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흑치상지 본인의 젊은 시절 일화로 (V)의 부분에

나이 어려 소학교에서 공부할 적에도 이미 『춘추좌씨전』 및 반마의 양사를 읽었다.

라고 한다. 이것은 『좌전』, 『사기(史記)』, 『한서(漢書)』 등을 실제로 읽었다기보다 한자·한문을 해석할 수 있었다고 하는 중국적인 교양이 깊었던 것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백제에 있어 한적(漢籍)이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사료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sup>37)</sup> 어디까지나 수사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백제 사회의 전모가 파악되지 않는 이상 흑치씨가 왕족 부여씨에서 분화되어 흑치의 땅에 봉건되었을 가능성, 달솔을 대대로 세습하였을 가능성, 흑치상지가 위에 쓴 한적과 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윤색의 가능성이 극히 많은 부분이고 곧 백제 사회의 실태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3. 웅진도독부에서의 사적과 당 사료의 혼란

그런데 묘지를 통해 열전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남아있다. 그것이 (VII)의 웅진도독부에서의 업적이다. 이 부분의 기록은 중국과 한국의 백제에 관한 사료 상

35) 백제 유민 묘지 중에서 禰씨 일족을 보면 세대가 지나면서 조상의 官號가 백제식 표기에서 중국식으로 변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植田喜兵成智 「在唐百濟遺民의存在樣態」 『朝鮮學報』236, 天理, 2015年).

36) 池田溫 「8世紀中葉における敦煌のソグド人聚落」 (同 『唐史論攷』, 東京, 汲古書院, 2014年, 初出 1965年)은 본래 이란계 민족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소그드인이고, 康, 安 姓 등을 칭하는 자가 출신 국명을 성으로 삼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출신지를 가지고 씨가 되는 한족의 습관을 따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민족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씨의 유래를 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흑치씨의 경우도 이문기, 註5 앞의 논문이 중국적인 씨성 관념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망설여진다고 지적한 견해에 따르고 싶다.

37) 이도학, 註5 앞의 논문.

황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바를 시사한다.

흑치상지의 웅진도독부 업적은 묘지에 따르면 웅진성절충도위(熊津城折衝都尉) → 충무장군·행대방주장사 → 사지절사반주제군사·사반자사 → 좌령군장·겸 웅진도독부사마라고 하는 경력을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명 중 웅진, 대방주는 『신당서』 권43 하 지리지(地理志) 안동도호부조(安東都護府條)에

처음 현경 5년(660), 백제를 평정하고, 그 땅을 웅진·마한(馬韓)·동명(東明)·금련(金連)·덕안(德安) 다섯 도독부(都督府)를 두고, 아울러 대방주를 두어 인덕 후에 폐지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 중국 사료에서도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반주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주(州)에 대해서 『삼국사기』 권37 지리지4에

도독부에 13현(縣)이 있다. . . . 동명주 4현 . . . 지심지(支潯州) 9현 . . . 노산주(魯山州) 6현 . . . 고사주(古泗州), 본래 고사부리(古沙夫里) 5현 . . . 사반주, 본래 호시이성(号尸伊城) 4현 . . . 대방주, 본래 죽군성(竹軍城) 6현 . . . 분차주(分嵯州) 본래 파지성(波知城) 4현 . . .

라고 하여, 한국 사료에는 당이 백제를 정벌한 후에 설치한 기미주(羈糜州)로서 이름이 보인다. 이 『삼국사기』 지리지 기사는 665년, 신라의 문무왕(文武王)과 웅진도독부에 부여를 부여를 사이에 맺어진 취리산 회맹(就利山 會盟)이 결정될 때의 웅진도독부 영역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여겨진다.<sup>38)</sup>

그런데 왜 열전에는 웅진도독부에 관한 기록이 없을까. 우선 흑치상지에 대해서는 제1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죽음에 이른 경위 때문에 기록이 불완전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며, 후대에 그 인물상을 정리할 때 관련 사료에서 기록을 모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웅진도독부에 관한 업적은 수집하려고 해도 웅진도독부가 한반도에서 철수한 것이 671년 무렵이라고 생각되므로,<sup>39)</sup> 멸망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사료가 이미 소실되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웅진도독부에 관한 기술은 문헌 사료에서도 혼란스럽게 보인다. 예컨대 부여를 백제 유민을 통치하기 위해 당에서 웅진도독(熊津都督)으로 임명되어 백제 옛 땅으로 간 인물이다.<sup>40)</sup> 그러나 『자치통감』 권201 당기 인덕 원년(664) 10월 조에

이에 부여를 웅진도위로 삼아 그 남은 무리를 소집하였다.

고 하여 부여의 관직은 웅진도위라고 되어 있다. 그것에 대해 『자치통감고이』 권10은

38) 池内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滿鮮史研究』上世編 第2冊, 東京, 吉川弘文館, 1960年, 初出 1930年); 末松保和 「百濟の故地に置かれた唐の州縣について」(『高句麗と朝鮮古代史(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三)』, 東京, 吉川弘文館, 1996年, 初出 1935年).

3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1년(671) 7월 條에 신라가 백제 故地에 所夫里州를 설치했던 기록이 있고, 그 이후 熊津都督府는 사실상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池内宏 「高句麗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同, 註36 앞의 책).

40) 『구당서』 고종본기 유인래전 등.

실록은 웅진도독으로 썼다. 생각건대 이때 유인계가 웅진도독을 검교(檢校)하니 어찌 다시 룡을 그로 삼지 않겠는가. 이듬해 실록은 웅진도위 부여룡과 김법민(金法敏)의 맹세라고 칭한다. 지금도 이에 따른다.

고 서술하여 「실록」에 이미 부여룡이 웅진도독으로 되어 있고, 도위로 취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사료의 뒤섞임과 부족이 보인다.

한편 묘지에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왜일까. 첫째 흑치상지 묘지 작성 시에 아들인 흑치준이 관여하고 있어, 집안 대대로 전해지는 흑치씨의 전래 사료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흑치상지와 친하게 지낸 ‘여(余)’가 찬자(撰者)였고, 그 인물이 흑치상지의 경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와 같은 흑치상지의 개인적인 경력에 불가한 정보가 흑치상지 묘지 작성에 사용되었으므로 묘지는 고인의 관력이 상세하였던 것이다.

묘지에 기록된 웅진도독부에 관한 기록은 이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관력에 관한 기록이 대체로 기존의 정보를 보완하는 사료였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1)</sup> 따라서 흑치상지의 경력은 표6처럼 정리할 수 있다.

---

41) 흑치상지의 웅진도독부에서의 사적 중, 웅진성절총도위에 임명되었던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충무장군 행대방주장사에 임명된 것은 함형 3년(672)의 것이고, 웅진성절총도위 임관은 672년 이전으로 이후 관력은 672년 이후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웅진도독부는 註37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671년 경에는 기능하지 않았고, 672년 이후의 관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도학, 註5 앞의 논문은 웅진도독부가 672년에 「전봉」되었다는 것에 의해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지적하고 있다. 예사롭지 않아 흥미로운 지적이지만, 671년 이후의 웅진도독부가 676년에 건안에 재설치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처우되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흑치상지 묘지에 보이는 그것을 논증할 수 없다. 또 흑치상지 묘지의 취임년 다음에 어딘가 개변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표 6 ] 흑치상지의 생애 복원표

업적	근거		
	列傳	墓誌	기타
630년 백제 서부 사람으로 태어남.	(A)		
달솔의 관직(官)을 가지고 군장으로서 백제에서 출사함.	(B)	(V)	
660년, 당의 정벌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자 임존성에서 당에 대해 저항운동을 지휘함.	(C)	(VI)	
663년, 당의 설득에 따라 항복하여 左領軍員外장군으로 임명됨.	(D)		
웅진도독부 지배하의 백제 고지에서 熊津城折衝都尉, 忠武장군·行帶方州刺史, 使持節沙泮州諸軍事·沙泮刺史, 左領軍將·兼軍熊津都督府司馬 등을 역임함.		(VII)	
儀鳳 3년(678), 토번과의 전쟁에 참여함. 劉審禮가 포로로 된 불리한 상황이 상지의 야습으로 인해 만회됨 그 공훈으로 左武衛장군兼檢校左羽林軍을 제수받아 河源軍副使로 임명됨.	(E) ①	(VII)	
調露 2년(680), 토번의 贊婆와 良非川에서 전쟁이 일어나, 상지의 야습으로 승리함. 그 훈공으로 河源軍大使로 임명됨.	(E) ②	(IX)	『舊唐書』本紀
開耀년간(681~682), 토번의 贊婆와 青海에서 싸워 승리함. 그 후 7년간 토번 방면의 방어 임무를 맡음.	(E) ③		
嗣聖 원년(684) 이때 左武衛大장군·檢校左羽林軍이 됨. 光宅 원년(684), 李敬業이 반란을 일으키자, 江南道行軍大總管으로 임명되어 정벌하러 감.	(F)	(X)	『新唐書』本紀
돌궐의 骨咄祿이 동기하자, 垂拱 2년(686), 燕然道大總管이 되어 兩井으로 침공하여 돌궐군을 부수고 燕國公으로 봉해짐.	(G) ①	(X)	
垂拱 3년(687), 돌궐군이 朔州에 침공하자, 燕然道副大總管이 되어 黃花堆에서 승리함.	(G) ②		
함께 정벌에 참가한 曩寶壁이 공을 세우려다 패배함.	(G) ③		
돌궐과의 전쟁에서 右武威衛大장군을 제수받아 神武道經略大使를 역임함.		(XI), (XII)	
永昌 원년(689), 酷吏周興에 의해 모반이 참언되어 趙懷節과 함께 옥에 갇혀 죽음.	(H)	(X III)	『新唐書』本紀
聖曆 원년(698), 아들인 黑齒俊의 활약에 의해 흑치상지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聖曆 2년에 다시 장사를 지냄.		(X IV)	

지금까지 검토한 것처럼 흑치상지 묘지는 그의 경력을 보완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다만 묘지는 선조의 계보나 입당 과정 등 입당 이전 백제에서의 업적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점도 많으므로 신중한 사료 비판을 하지 않고 이용하면 묘지의 윤색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

또 흑치상지 묘지는 당에서 웅진도독부에 관한 사료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며, 그 부족을 보완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자료이다. 그와 동시에 앞서 이야기한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이 주목된다. 중국 문헌에 전혀 보이지 않던 기미주 이름이 출토 사료인 흑치상지 묘지에서 보이는 것은 『삼국사기』 지리지의 도독부조가 동시대 사료를 비교적 충실히 계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 결론

흑치상지 열전은 독자적인 정보가 몇몇 인정되지만, 그 정보량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흑치상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소량이다. 그것은 그가 불명예스럽게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후에 사적이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사료에 유루(遺漏)가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열전과 사료 계통을 전혀 달리하는 묘지는 흑치상지의 개인적 업적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가 몇몇 있다. 다만 윤색·개변이 가해졌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당시 흑치준의 정치적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처럼 흑치상지 묘지는 윤색이나 개변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본인의 업적을 보완한다. 그렇다면 재당백제유민(在唐百濟遺民)의 사료를 연구하기 위한 시각에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

첫째, 흑치상지·흑치준 부자(父子)의 묘지 내용은 백제 사회의 상태를 직접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와 같은 모습은 다른 백제 유민의 묘지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예(禰)씨 일족의 묘지에는 예씨가 중국에서 백제로 이주하였다고 하는 선조 전승이 있지만, 그 전승도 세대마다 이동(異同)이 있어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또 예군(禰軍) 묘지도 모든 문맥에서 분리되어 ‘일본(日本)’만 거론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묘지 또한 작성된 678년이라고 하는 시대 상황에 입각하여 이해해야 하는 사료이다. 백제 유민의 묘지에 대한 연구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구 방법은 앞으로 더 개발될 것으로 생각한다. 적어도 각각의 묘지가 작성된 배경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 문헌 사료 중 웅진도독부에 대한 기록은 미비한 점이 있고,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지리지 기록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유민의 묘지에도 몇몇 웅진도독부에 관한 기록이 있으므로, 그러한 기술과 『삼국사기』의 기록을 조합하면 재당백제유민과 웅진도독부의 존재 양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부기(付記)

본고는 2014년 12월 14일 큐슈시가쿠카이(九州史學會) 조선학부회에서 구두로 발표했던 「흑치상지 관련 사료의 종합적 재검토-대당 백제유민사의 분석을 통한 시론(黑齒常之關聯史料の綜合的再檢討-大唐百濟遺民史の分析視角のための試論)」을 가필 수정한 것이다. 또 2013년 일본학술진흥회 과학연구보조금(특별연구원장려비·JSPS研究費 13J03440)에 의한 연구성과의 일부이다.